

코스피, 4000선 복귀...코스닥 2년 4개월만 최고

외국인·기관 ‘사자’ 상승세

삼전·원전·방산주 등 주도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4000선을 탈환했다. 코스닥도 6거래일 연속 올라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1.37p(1.04%) 오른

4036.30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40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달 20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5.33p(0.38%) 오른 4010.26으로 출발해 장중 기준 4거래일 만에 4000선을 회복했다. 이후 잠시 하락 전환했으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뒤 오름 폭을 키웠다.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03억 원, 7566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8988

억원 때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증시 장세에 상승 압력을 받는 흐름을 보였다.

앞서 뉴욕증시는 비트코인이 5% 가까이 상승하며 전날 하락분을 만회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0.86%)가 오르고, 3분기 최대 실적을 공개한 반도체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도 시간 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해 국내 일부 반도체주의 매수세를 자극했다. 여기에 장중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3%)이 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을 나타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는 더욱 상승폭을 키웠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6%)가 올라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LG에너지솔루션(0.72%), 현대차(0.19%), 기아(1.37%) 등도 상승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두산에너지빌리티(4.53%), 현대건설(6.98%), 효성중공업(1.83%) 등 원전 관련주도 줄줄이 올랐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3.59p(0.39%) 상승한 932.01에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지난 2023년 8월 1일(939.67)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수는 지난달 26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연속 상승일수로 보면 지난 9월(2~15일) 10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긴 상승세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1119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4억 원, 143억원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내린 1468.0원을 기록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현대차·기아, 대한민국 기술대상 3개 부문 수상

탄소 저감 철강부품

혁신 기술 ‘대통령상’

내일까지 기술 전시

현대자동차·기아가 ‘2025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세 개 부문을 수상하며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대차·기아는 코엑스에서 열린 기술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장관상, 산업 기술진흥 유공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매년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술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현대차·기아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자동차 철강 부품 제조 혁신 기술’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현대차·기아는 이 기술을 통해 열처리 공정 시간을 크게 단축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부품 물성을 확보했다.

이 기술이 양산 전 영역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세시 부품 제조 공정의 탄소 배출이 최대 70% 감축될 것으로 현대차·기아는 기대했다.

현대차·기아의 차용로봇 ‘엑스를 솔더’는 장관상을 받았다. 엑스를 솔더는 산



왼쪽부터 ‘2025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수상한 현대차·기아 관철로봇팀 윤주영 팀장(장관상), 현대차·기아 차량제어개발센터장 오종한 상무(동탑산업훈장), 현대차·기아 기초소재연구센터장 홍승현 상무.

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어깨 끈력을 보조해 근골격계 부담과 작업 피로도를 경감한다.

오종한 현대차·기아 차량제어개발센터장은 구동모터 기반의 차량 모션 제어 기

술(E-VMC)을 개발한 성과 등을 인정받아 산업 기술진흥 유공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현대차·기아는 3개의 수상 기술을 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에서 선보인다. 무스에서

는 각 기술을 설명하는 영상과 함께 관련 부품이 전시된다. 특히 엑스를 솔더 전시 공간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서류 간소화

노동부, 고용24 연계...고용행정통계 개방 확대도

앞으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접수할 때 각종 서류 제출 부담이 덜어지며 신청이 더 수월해진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24 공공데이터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그동안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센터에서 유통되는 서류 중 고용24에서 활용할 수 있는 37종을 발굴해 연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장려금 등 14종의 민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7종의 서류 제출 부담이 덜어진다.

가령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현재는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내야 했다.

앞으로는 공공데이터센터 서비스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이날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접수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모성보호, 실업급여 접수자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심의위는 이날 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행정통계포털(eis.work24.go.kr)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용행정통계가 36종 추가 개방된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인원·지급 현황 통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지급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율리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정책사각지대인 ‘쉬웠을 청년’ 지원을 위해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고, 지역·진로유형·희망직종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을 추천할 예정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취업, 기업의 채용, 행정의 민원·상담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 출생지원 정책 확대 성과...출생률 ‘쑥’

시, 1월~9월 4878명...증가율 2개월 연속 특광역시 1위

광주시가 올해 출생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며 출생률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는 9월 광주 출생아 수가 550명으로 전년 동월(482명) 대비 68명(14.1%)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출생증가율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시는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특·광역시 1위를 유지했다.

올해 1월~9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48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명(7%) 증가했다. 출생의 기반이 되는 혼인 건수 역시 45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건(8.6%) 늘었다.

시는 결혼·임신·육아·돌봄·일가정 양립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광주아이 키움 2.0’ 정책을 중심으로 출생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2514억원을 투입했으며, 대표 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임신부 가사돌봄, 손자녀 가족돌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입원아동돌봄, 삼삼오오 이웃돌봄,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초등학교 10시 출근제 등이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12세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임시보육과 놀이활동, 등하원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1월~10월 이용 가구는 2524가구로, 전년 대비 215가구



광주시는 최근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아이돌봄 캠프’를 개최했다.

(9.31%) 증가했다. 시는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에서 200%까지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도 지난 10월까지 1590명이 이용하며 호응을 얻었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청소와 정리정돈 등 가사를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지원 인원이 확대됐다.

시는 내년에도 돌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하고, 부모 부담 필요 경비 지원 연령을 3·4·5세로 확대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관광공사, 새만금컨벤션센터 위탁 운영

2028년까지 3년간 66억원 규모...첫 수탁 이후 4년 연속

광주관광공사가 새만금컨벤션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4차 연속 선정됐다.

광주관광공사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군산 새만금 종합 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위탁자 선정에 응모해 최종 계약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달 중 재계약 체결하면 오는 2028년 12월까지 군산시로부터 총 약 6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새만금컨벤션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광주관광공사는 2017년 2월 새만금컨벤션센터 위탁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2020년 2차, 2023년 3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선정이다. 2014년 개관한 새만금

컨벤션센터는 전북의 유일한 전시컨벤션센터로 2000여 규모의 컨벤션홀과 10개의 회의실, 1만8000㎡ 규모의 실내·외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되며 국제 행사 유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공사는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지역 거버넌스와 연계한 공동 마케팅, 찾아가는 마이스 설명회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왔다. ‘새만금오토&레저캠핑쇼’, ‘2025 새만금 JOB going with 이차전지’ 등 대표 주관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주도해왔다.

공사는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에 대비해 군산과 새만금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된 행사를 발굴하고 국제·대형 행사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KT 대표 후보 7명 압축...9일 숏리스트 발표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이 7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기존 16명 후보를 7명으로 줄이고 후보자들에게 통보했다.

위원회는 앞서 공개 모집을 통해 33명을 1차 후보군으로 확정된 뒤 인선자문단 자문 등을 거쳐 이를 16명으로 줄인 바 있다. 세부 명단과 사내 후보 비중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를 확정하며, 신인 대표이사는 2026년도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선임된다. 연합뉴스

문장, 주영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실터스 대표 등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대표를 제외하면 모두 KT 출신 인사이며, 현직은 이 부문장이 유일하다.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온라인 면접을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숏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면접은 16일 진행해 당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를 확정하며, 신인 대표이사는 2026년도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선임된다. 연합뉴스